지상백고좌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부처님 같아지는 법, ‘팔정도’에 있다”



진옥 스님은… 1975년 명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보성 스님에게 계맥을 전수받았다. 1999년 달라이라마에게 보살계와 금강승계를 받고 법제자가 됐다. 보문복지회 초대 이사장으로 18년 동안 여수 지역 불교사회복지사업을 이끌어왔다. TV, 유튜브를 통해 대중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BBS불교방송에서 강의한 〈금강경〉 해설을 묶어 〈설법집 금강경〉을 비매품으로 발간해 1만권을 전남지역 불자들과 시 · 청취자들에게 무료 배포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장으로 달라이라마에게 받은 티베트대장경 역경에 매진하고 있으며, 여수 석천사 주지로 주석하며 전법 · 포교하고 있다.

여수 석천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이듬해인 1599년에 창건됐으니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을 흠모한 승장 옥형(玉泂)스님과 자운(慈雲)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큰 바위 아래 샘 하나가 있어 ‘석천사(石泉寺)’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대웅전과 해수관음상,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있는 소박한 사찰이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승(義僧)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의승당이 있다. 의승당 주련에는 ‘연꽃 잡은 손으로 호국의 기치 들어/왜인의 침략야욕 파사현정(破邪顯正) 하셨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석천사에 주석하고 있는 진옥 스님을 친견했다.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상을 좋아해서 나무로 조각한 고행상을 모셨다. 티베트에서 모셔온 고행상을 담은 티베트 불화 탕카도 걸려있다. 이 앞에 서니 마음이 숙연해진다.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면서 부처님을 존경하고 닮고 싶은 진옥 스님의 결연한 의지가 읽혀졌다.

진옥 스님은 선지식들에게 두루 가르침을 받았다. 명선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송광사 방장 보성 대종사로부터 율맥을 전수받았다. 1999년 달라이라마로부터는 보살계와 금강승계를 받고 법제자가 됐다. 스승에 대한 이야기부터 물었다.

“승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세 분의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부모와 같이 키워준 사람을 은사라 하고, 계율의 기준점이 돼 주시는 계사라 합니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깨침으로 이끌어 주는 분을 법사라고 합니다. 법사는 법의 스승이지요. 달라이라마 존자는 저에게 법의 스승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 보살계, 금강승계를 주신 것은 수행의 단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로부터 가장 닮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보리심을 발휘해서 일체중생을 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란다 대학의 전승입니다. 2000년 전에 나란다 대학에서 했던 그대로 대승불교의 경전을 배우고 수행하는 그 방법이 티베트에 전수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진옥 스님은 “법제자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른스님만큼 행위를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생각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팔정도에 대한 법문을 이어갔다.

“우리가 부처님을 대할 때도 정견, 정사유 등 팔정도를 따르겠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은 부처님과 생각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정견이란 ‘부처님 견해와 내 견해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정사유란 부처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내가 부처님처럼 사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정(正定)은 바른 선정입니다.”

진옥 스님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선을 하면 번뇌가 끊어지게끔 된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바르다=부처님 생각 같다’ 의미
부처님 같이 사유 · 선정하는 법
‘팔정도’ 담겨… 수행으로 실천을

은사 명선 스님 문하로 출가해
보성 스님에게 계맥 전수 받아
1999년 달라이라마 법제자 돼
“선지식과 생각 같아지려 노력”

“다른 수행법은 번뇌가 좀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팔정도에는 부처님께서 사유하신 방식대로 사유하고 부처님께서 선정을 행하신 방식대로 선정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불자라면 부처님과 생각도 같고 행동도 같아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다’는 이야기는 ‘부처님과 생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다른 점이 있지만 부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팔정도의 수행입니다.”

진옥 스님은 나란다 전승의 불교를 티베트 선지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지 25년이 됐다.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대중들에게 법의 은혜를 입었기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 다람살라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양로원을 후원하기 위해 2019년에 〈반야심경〉 사경 전시를 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의 방편으로 〈반야심경〉을 사경했기에 전시를 할 수 있었다. 2020년에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선(禪), 열반의 노래’ 개인전을 가졌다.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 병원에도 갈 수 없는 10만 티베트 난민들을 위한 전시였다. 진옥 스님의 자비행에 많은 사람이 동참했다.

진옥 스님에게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라는 구절이 있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하니 우리 몸도 허망한 물질인데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내 스님은 “실상을 정확하게 보라”는 답을 내어줬다.

“몸이라는 것은 부처님 몸이건 내 몸이건 저 지옥의 몸이건 천상의 몸이건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고 업을 따라서 윤회합니다. 모두 다 허망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관찰한다면, 모든 상이 실제 모양이 아닌 줄 안다면 바로 즉견여래이며 공성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어요.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 실상,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허무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이 몸이라는 것이 사실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 몸이 아니고서는 여래를 이룰 방도가 없으니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줬다. 진옥 스님은 사람 몸 받았을 때 열심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중생들이 윤회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천상까지 다 합해 놓고 보아도 사람의 몸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수행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엄청난 업에 의해 이 몸이 생긴 것이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몸이 있어야 사유도 할 수 있고 반성도 할 줄 알아요. 부처님께서는 ‘사난득(四難得)’이라 하여 육도 중생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장부(丈夫)가 되기 어렵고,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고, 가르침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깨닫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이 몸이 있어야 수행을 하고 공성으로 들어가니 굉장히 소중합니다.”

1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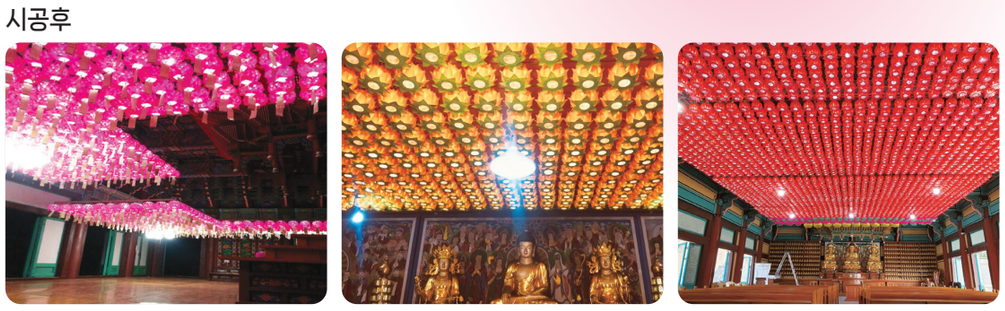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비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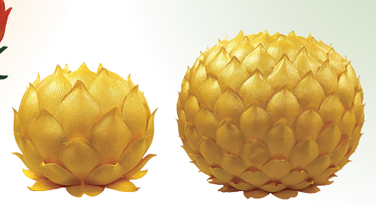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칼라연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